

N/A

Claire's Camera with King's Leap
Nicolas Bermeo, Jiyeon Chung, Bailey Connolly, Isaiah Davis, Audrey Gair,
Sang Woo Kim, Nandi Loaf, Isabelle Frances McGuire, Sveta Mordovskaya, Kira
Scerbin, Joe W. Speier, Ellis & Parker von Sternberg, Sun Woo, Michelle Uckotter
August 31 - October 18, 2026

2024년, 나는 홍상수의 영화에서 제목을 가져온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라는 그룹전을 기획했다. 전시는 홍상수의 영화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딱히 무엇에 관한 전시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래서 홍상수에게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그의 영화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엇갈린 만남이나 늦은 밤의 술 한잔, 영화 속의 또 다른 영화 사이로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지나가기도 한다.

이번에는 N/A의 초대로 서울에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 제목은 홍상수의 또 다른 영화에서 가져와 <클레어의 카메라>라고 지었다. <클레어의 카메라>는 8~9년 전 내가 처음 본 홍상수의 영화였다. 그의 영화 대부분과 달리 이 작품의 배경은 한국이 아니라 칸 영화제다. 영화에는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하는데, 당시 그는 실제 칸 영화제에서 신작을 홍보하기 위해 현지에 머물고 있었다. 홍상수 역시 소규모 스태프와 함께 칸에 있었고, 이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위페르와 두 번째 영화를 촬영했다. 홍상수의 '가짜' 칸에서 위페르는 영화제를 찾은 파리 출신의 방문객 클레어를 연기하며, 한국에서 온 영화감독과 배급사 직원 등 영화계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제목 그대로 클레어에게는 카메라가 있고, 그는 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다.

<클레어의 카메라>는 내가 기획했던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King's Leap의 작가들과 함께했던 <Exquisite Corpse>에 더 가깝다. 이 전시의 제목은 여러 사람이 차례로 그림을 이어 그리는 초현실주의자들의 놀이에서 가져왔다. 이번 전시에는 당시 참여했던 작가들과 세 명의 새로운 작가, 그리고 N/A 프로그램의 작가 세 명이 함께한다.

이 전시들을 관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홍상수에게 끌리는 이유는 우연과 가능성에 있다. 칸 영화제에서 우연히 만난 위페르와 홍상수가 함께 영화를 만든 상황은 Frieze Seoul 기간 동안 King's Leap이 N/A에서 전시를 여는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다. 나 역시 클레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위페르와도 아주 다르지는 않다. (물론 나도 그만큼 연기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N/A라는 외부의 공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는 내가 운영하는 King's Leap을 잠시 3인칭으로 바라보고 해부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클레어가 아니라면, 어쩌면 나는 카메라일지도 모른다.

글. Alec Petty

/

Back in 2024, I curated a group show called *Right Now, Wrong Then*, named after a film by Hong Sang-soo. The show was not about Hong's film, and it wasn't about anything in particular. Maybe this is why I was drawn to Hong, where not much of anything seems to happen, but a life can pass by in a missed connection, in a nightcap, in a film within a film.

I'm now curating a show in Seoul, at the invitation of N/A. I've named this show *Claire's Camera*, after another one of Hong's films. *Claire's Camera* was the first Hong film I saw, 8 or 9 years ago. Unlike most of Hong's movies, *Claire's Camera* doesn't take place in Korea, it's set at the Cannes Film Festival. It stars Isabelle Huppert, who happened to be there promoting a new film at the real Cannes Film Festival. Hong was also there with a small crew, and took the fortuitous opportunity to shoot with Huppert for the second time. In Hong's fake Cannes, Huppert plays a Parisian visitor to the festival, and befriends a small network of South Korean film insiders, directors, and distribution staff. Isabelle, as Claire, does in fact have a camera, and she does shoot pictures of these characters.

Claire's Camera bears no resemblance to my group exhibition *Right Now, Wrong Then*. It is more related to an exhibition I curated last year called *Exquisite Corpse*, with the roster of artists at King's Leap, named after the hand drawn surrealist parlor game. This show features those same artists, plus three more, and three from N/A's program. The thread between all the shows, and with my interest in Hong, is an element of chance and potential. Huppert and Hong collaborating at the Cannes Film Festival mirrors King's Leap staging a show at N/A during Frieze Seoul. I am not unlike Claire, nor am I unlike Huppert (as much as I would hope to act as well as her). My role, now externalized at N/A, allows me to dissect King's Leap in the third-person. If I am not Claire, perhaps I am the camera.

Text. Alec Petty